

안학(安廓)의 조선 육해군사(朝鮮 陸海軍史)

황종호, 김효철(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서언

안학(安廓 : 1886-1946, 호는 자산(自山)) 항일기의 국학자)은 1886년(고종 23) 서울 태생으로 독립 협회운동의 역사적 현장이었던 수하동 초등학교에서 삶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07년 대성학교를 세운 안창호, 강명의숙과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 등과 교분을 맺고 애국계몽운동으로 교육구국운동에 참여하였다.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을 통해서 서양을 이해하고 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량치차오(梁啓超)의 음빙실문집(飲冰室文集)을 통해 루소의 평등사상과 자유. 자주. 자치사상에 눈을 뜨자 호(號)를 ‘自山’이라 지어 사용하였다. 특히 안학은 조선판 음빙실문집을 저술하며, 방대한 국학 연구과정에서 논설『조선인의 민족성』을 통하여 조선인의 주체적 진보 가능성과 확신을 퍼력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마산 창신학교 교원이 되었으나 1914년에 일본 니혼대학에 뒤늦게 유학하여 정치학을 수학하는 한편으로 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며 유학생학우회의 기관지인 학지광(學之光)에 격렬한 국수주의적 논설 9편을 발표하였다. 1916년 말 다시 마산 창신학교로 돌아와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윤상노, 서상일, 이시영 등이 이끄는 비밀결사인 조선국권회복단의 마산지부장을 맡았으며, 1918년 이희영(李會榮)이 주도한 고종 해외망명 계획에 참여하는 등 민족해방운동과 깊은 연관을 갖으며 국학연구를 하였다. 1919년에는 마산지역의 3·1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21년에는 서

울에 돌아와 1921년에 창간된 잡지 아성(我聲)의 편집인으로 민족운동의 통일을 촉구하는 논설을 발표하던 그는 1922년 민족운동이 좌우분열을 일으키자 국학연구에만 몰두하였다. 조선문법(1917)을 시작으로 조선무사영웅전(1919), 개조론과 자각론(1920) 등을 펴내었으며 조선문학사(1922)와 조선문명사(1923)는 국학연구의 대표작이 되었다.

안학의 국학연구는 역사, 어문, 문학, 미술 등 여러 분야에 미쳤고, 장년기에는 음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훈민정음의 악리(樂理) 기원설을 제시하는 등 어문연구와 문학연구에 각별한 연구 성과를 남기었다. 그는 민족의 고유한 정신과 생활양식을 종합적으로 구명하려 하였으나 외래문화와의 접촉을 통한 자기발전도 매우 중시하였다. 또한 국학연구방법상에서도 주목할 점은 주저(主著)인 조선문학사와 조선문명사는 최초로 통사체계를 도입하고 시대 구분을 제시한 점이다. 과학적 객관성에 근거하여 민족적 주체 확립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려는 독특한 국학 연구방법론을 보여주었다. 근대사에서 식민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성찰하여 국학체계를 수립한 안학의 일생과 학문적 업적은 실로 높이 평가된다.

안학은 8,500여 참고서지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대표작인 조선 문명사를 저술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조선민족사고(朝鮮民族史考), 조선미술사개론(朝鮮美術史概論), 조선학예사(朝鮮學藝史),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 조선정치사(朝鮮政治史), 조선경제사(朝鮮經濟史), 조선외교사(朝鮮外交史), 조선육해군

사(朝鮮陸海軍史) 등의 8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안학은 필요에 따라서 집필을 순한글(純諺文), 순한문(純漢文), 국한혼용문(朝鮮文), 영문(英文), 일문(日本文) 등으로 하였는데 조선문으로 집필된 조선정치사의 말미에는 조선육해군사의 요약문이 소개되어 있어 이를 읽기 쉽도록 현대어로 바꾸어 소개하고자 한다.

1. 군제(軍制)의 개관(概觀)

모든 인류가 살아가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조직한 후 국가를 보호하고 발달시키려 하는 과정에서는 국가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끓어나게 된다. 경쟁의 과정에 도덕적 규범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므로 전쟁의 역사가 이어지고 군비 경쟁은 동서 어느 나라이던지 가릴 것 없이 지난 옛날의 미개한 부락 시대로부터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원래 조선은 그 지형이 이웃한 강국과 뚜렷하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여러 갈래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단군이전의 부락시대로부터 생존경쟁이 극렬하였다. 단군이 부락을 하나로 묶은 이후로는 대규모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안팎으로 풍운이 끓이지 않았다. 오늘날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단군 시대의 규칙적인 전쟁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강원도 지방에 예맥(讐貊)이 강성하여 종종 난을 일으킴으로 대장 여수기(余守己)를 보내어 격퇴하고 그 추장 소시무리(素尸茂梨)를 참수하였다. 전승보고를 기념하여 지명을 우수주(牛首洲)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소시무리의 뜻을 한자로 풀어서 쓴 것이다. 또 당시 해적의 침입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비천생(俳天生)(排 : 裴 또는 裴와 같음)을 남해상장(南海上長) 즉 해군대장으로 삼아 진압케 하였으며 한강하구인 강화도 전등산(傳燈山)에 성을 쌓고 요새부(要塞部)를 두어 위협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지난날의 것들이 전쟁역사의 시작이 된다. 그 뒤로 신주(神州 : 빌해 62주의 하나, 압록부의 영지)의 비옥한 토지를 찾아서 외적의 내침

이 끓이지 않았으며 또한 중기 고대시대(中古時代)에는 심국간의 전쟁이 빈번히 일어났다. 5,000년 사이에 일어난 크고 작은 전란의 수는 대체로 100여 차례인데 그중 큰 전쟁의 수를 꼽으면 외부와의 전란이 20여 차례 있었고 내부의 전란이 10여회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극심하였던지라 국민은 큰 전쟁이나 방어전에 쓰일 수 있는 전술을 마련하고 전쟁 장비를 갖추는 데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국민과 나라를 보전하는데 힘을 다하였다. 그런 까닭에 상고시대(上古時代; 上古 小分立 政治時代)에는 모든 사람이 칼을 차고 집집마다 활, 화살, 창, 방패 등을 간직하고 있었다. 왕조시대에는 10집씩 묶어서 통을 구성하는 섭가작통법(拾家作通法)을 두어 자치적으로 군비를 마련케 하였다. 당시 여자라 할지라도 출전할 의무가 있었으니 전하여지는 말에서는 오늘날 여자가 행주치미를 입게 된 것은 고대 전투당시 돌과 전투기기를 나르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예전부터 전해져오고 있는 군비(軍備)를 갖추는 정신과 전쟁을 하는 주된 목적은 이웃나라로 쳐들어가서 침략유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는 소요로 인한 혼란을 다스리고 밖으로부터의 강적을 방어하여 평화를 유지함으로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만을 생각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5,000년에 걸쳐 피비린내 나는 큰 전쟁이 여러 차례일어 났으나 국민들은 조금도 전쟁의 고통을 꺼리지 아니하고 더욱 더욱 무예를 중요하게 높이어 생각하였으니 이제 그 내용이 어려하였는지를 다음의 각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육군제(陸軍制)

군비에 대하여서는 원칙이 있었는데 인구, 국가 재정, 지리적조건, 주변국가의 사정 등에 따라서 정하게 된다. 그리고 군제와 그 내용에 대하여서도 전쟁의 경력에 따라서 더러는 증가시키고 더러는 감소시키는 등, 정하여진 규칙 없이 무상하게 변경하

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전해져 내려오는 군사행정을 하는 데도 고정된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진화 발전하는 것 이어서 끊임없이 변천을 거치었는데 이들 제도를 설명하자면 번잡할 뿐 아니라 일일이 다루기도 어려움으로 주요한 점만을 빌췌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상고시대(上古時代)에는 역사에 기록된 바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되돌아 살펴보기 어렵다. 오직 단군이 3,000명을 인솔하여 야만인들을 내쫓고 나라를 정한 후 전국을 3,000단부(團部)로 나누었다고 하였는데 그 3,000인 이라함은 대장으로서 전승의 공에 따라서 제후에 봉하여진 사람 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부하병졸들은 얼마나 되었으며 제도는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유사시에 모병령을 내리면 의무적으로 국민 모두가 출전하였다.

중고시대(中古時代 : 中古 大分立 政治時代)에는 외구내란(外寇內亂)이 극히 많이 일어났음으로 이 때에는 임시징병만으로는 도저히 충당히 어려워 상비군을 두고 일상적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쳐 미리 대비케 하였다. 당시 병졸의 수는 구치관(具致寬)의 말에 따르면 중고시대의 전반부에는 고구려에 병졸이 300,000인이었고 백제에는 100,000인 그리고 신라에는 100,000인이 있었으므로 합계 500,000인이 있었다고 한다. 중고시대의 후반부인 남북조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구가 증가하여 백제에는 병졸이 400,000인 이었고 신라에는 200,000인이 있어서 합계 600,000인이 병졸이었다.

중고시대(中古時代)의 역사기록도 분명치 아니하여 북방의 군체는 알 수 없고 신라의 제도는 자비왕(慈悲王) 때에 이미 좌우장군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법흥왕(法興王)이 병부를 두고 진평왕(眞平王)이 시위부(侍衛府)를 설치한 뒤에 이루어졌다. 군에서의 호칭은 23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의 통솔자의 호칭은 장군(將軍), 대감(大監), 제감(弟監), 소감(小監), 군주(軍主) 등이었다. 군영의 수는 16정(停) 9서(誓)와 5서(誓) 40당

(幢: 병사100명을 1당으로 함)이 있었다. 전군을 나누어 궁척(弓尺), 화척(火尺), 개지극당(皆知戟幢), 보병(步兵), 기병(騎兵), 노당(弩幢), 운제당(雲梯幢), 충당(衝幢), 석투당(石投幢)의 9개 부대가 있었다.

근고시대(近古時代 : 近古 貴族政治時代)에는 영토는 줄어들었으나 군체는 발전하였는데 그 편제를 살펴보면 8위(衛) 모두 45령(領)으로 하나의 령에는 군인 1,000명씩 있었고 장교의 수는 모두 3,517인 이었다. 이 이외에 지방군인이 또 있었으니 전국의 군인 수자는 2계(界) 5대(隊)로 나누어진 138,000명 이었다. 모두 합하면 전국의 정규 군인의 수는 220,000이었다. 이 이외에 유병(遊兵) 80,000인이 따로 있었다. 즉 중앙에 8위(衛)의 군졸이 82,000인이 있었고 지방에 정병(正兵) 138,000인이 있고 별도로 유병(遊兵) 80,000인 있었으므로 모두 합하여 300,000광군(光軍)이 있었다고 하는데 광군이라는 이름은 거란(契丹)전에서 시작되었다.

그 부대는 11반(班)으로 나뉘었는데 신기(神騎), 신보(神步), 경궁(梗弓), 정노(精弩), 석투(石投), 대각(大角), 철수(鐵水), 강노(剛弩), 도탕(跳湯), 사궁(射弓), 빌화(發火) 등 이었다. 이들 각 대와 각 위 이외에 중방(重房)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곳에서 여러 장군들이 모여 일을 의논하였다.

근세 이조시대(近世 李朝時代 : 近世 君主獨裁政治의 時代)에는 군기(軍器)의 발달로 인하여 큰 변화가 이루어 졌다. 그 제도를 보면 5위(衛)로 조직되었는데 의홍위(義興衛), 용양위(龍讓衛), 호분위(虎賁衛), 충좌위(忠佐衛), 충무위(忠武衛) 등 이었다. 각 위는 5부(五部)로 나누고 각 부(部)는 다시 4통(統)으로 나누었다. 위(衛)에는 위장 15인이 있었으며 부(部)에는 부장 25인이 있었고 통(統)에는 통장(統將)을 두었으며 그 아래에 여장(旅將), 사장(師將), 대장(隊將), 정장(正將), 오장(伍將) 등을 두었다. 경성(京城)에는 5영(營)이 있는데 훈련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총융영(總戎營), 어영청(御營廳), 수어청(守禦廳) 등으로 대장(大將) 5인이 통제하였다. 지방에는 절도사(節度使), 병사(兵使) 등

이 있어서 각 군을 통솔하였다. 전국의 병사 수는 장부상에 기재한 자가 1,200,000에 달하나 실제 숫자는 500,000에 불과하였다.

병역은 육해군을 막론하고 국민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하는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이었다. 병적업무는 군적도감(軍籍都監)에서 집행하였는데 초기에는 전해져 내려오든 대로 15세 이상에서 50세 이하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이조 숙종(肅宗) 때에 이르러서부터는 10세 이상 60세 이하로 개정하였고 1가구 내에서 4부자가 병역에 임하고 있을 때에는 1인을 병역을 면하게 하여 가사를 돌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 나이가 80이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병역을 면제시켜주어 부모를 공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자치 법에서는 주민을 10호(戶) 또는 5호 단위로 통을 만들도록 하여 자기 구역을 순찰경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예전부터 제도가 스스로 다듬어져 자 치제도기 이루어진 까닭에 군사비품에 관하여서도 그 반을 국민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였다. 군복, 활, 화살, 창, 검 등을 자비로 비축하다가 열병할 때에는 이들을 점검케 하였다. 왕조 중엽에 이르러 그 법을 변경하여 국경을 지키는 병사(戍兵)에게는 의복을 제조 공급하였으며 일반 정규병졸에게는 공전(公田)을 세금 없이 경작케 하여 생활하게 하였다. 이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와 국민에게 부담토록 하였다. 특히 체력이 모자라 병역을 감당치 못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군마나 군포로 대신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가난한 국민이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하는 수 없어서 그것을 이유로 하여 계(契)에 들게 하였다. 계라고 하는 것은 체력이 모자라는 자들이 조합을 꾸며 합력하여 면포를 납부케 하였으니 조선(朝鮮)의 계(契) 풍습이 이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병사(兵事)교육(教育)에 대하여서는 신라 문무왕(文武王) 시대로부터 강무전(講武殿)을 설치하고 왕이 친히 출석하여 무예를 장려하였으며 근고시대로부터는 권무청(勸武廳)을 설치하고 무예에 소질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조초기로부터는 삼군(三軍)부(府)내에 병(兵)학교를 두었으며 봄가을로 강무회를 열고 각도의 무장들의 재능을 보이고 강습케 하였다. 그 외의 사졸(士卒)에 대하여서는 4개월에 한차례 또는 1개월에 한차례씩 열병식을 거행하였으니 이는 오늘날의 제도로 말하자면 가상훈련(假動兵) 또는 대연습과 같은 것이다. 즉 전국 군인을 겸열하여 일정한 연병장에서 진법을 배우고 전술을 시험하니 이는 강무(講武)와 열병(閱兵) 두 가지가 군정(軍政)의 대사(大事)라 조정이 이를 크게 주의한 것이다.

이씨 조선 세종(世宗)의 조서(詔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옛날부터 춘하추동의 사시로 날을 정하여 강무(講武)를 함으로서 위해(危害)받는 일을 없애고자 하였으니 이는 선왕께서 정하여주신 제도로서 국가군대의 중요사이니라. 선대왕님들께서 옛날제도를 참작하여서 봄가을에 강무토록 하는 법을 시행하였는데 신진유생들은 이를 임금이 즐기려고 하는 행사로 보아 모두 그만둘 것을 청하고 있으며 대신들 역시 더러는 그만두는 것을 청하고 있노라. 이는 선대왕님들께서 법으로 정하신 것이니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 청을 들을 수 없노라. 지난번 강무 때에 본인이 병으로 친행(親行)할 수 없었으므로 장수에 명하여 대행케 하고자 하였는데 대신이 병권을 받을 수는 없다하여 그대로 지나치게 되었었노라. 금년에는 병이 더욱 심하여 내 강무를 잠시 중단할 것을 바란다면 이는 내년 봄에 또다시 규칙으로 정해져있는 병조의 대사를 중단하는 일일 것이니라. 임금이 한번 움직임에는 번거로운 폐단이 많이 일어날 것임으로 이번에 세자로 하여금 대행키로 하노라.”

『李世宗詔曰古有四時之日以講武除害此先王之定制而軍國之重事也祖宗參酌古制定爲春秋講武之法而新進儒生以爲人君逸豫之舉每請停行大臣亦或請停以爲祖宗成憲不可廢不從矣曩者講武之期予病不得親行故欲命將代行而大臣以爲兵權不可授將臣

寢之今歲甚荒予欲姑停而明春又停則兵曹以大事不可廢云人君一動煩弊必多今歲世子代行』

이씨조선의 세조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요즈음 세상이 평안한 시기에 있어서 수륙장수들이 부지런히 병사를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방어기구를 마련하는데 뜻을 두지 아니하니 만일 갑자기 적이 숨어 쳐들어 왔을 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병법에 이르기를 장수는 자기를 섬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 있을 뿐이라 하였으니 장수를 보내어 변방을 순찰케 하고 확인한 바에 따라서 제도를 정하고자 하노라. 경은 더욱 충성을 다하여 국가의 위령(威靈)이 손상됨이 없도록 할지니라. 등등...”

『李世祖喻曰近者昇平水陸將帥不勤練兵守戍禦之具全不介意若一早鼠竊則何能臨危制度乎兵法曰母將其不來恃吾有而待之予將遣巡察以視能定卿其益勵忠誠毋損國家之威靈 云云』

이와 같은 조서(詔書)나 유시(諭示) 외에도 여러 대신들의 상소와 건의문을 읽어보면 오래전부터 조정이 무예를 가르치고 군비를 갖추는데 열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해군제(海軍制)

육군을 우익이라 부르고 해군은 좌익이라 불렀는데 세가 약한 듯 가장하여 적을 유인하거나 허세를 부림으로 적을 위협하며, 날카롭게 공격하기도 하고 공격의사가 없는 듯 거들먹거리기도 하는 등 공격과 수세로 번갈아 바꾸며 기이하게 또는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바꾸기를 무수히 되풀이하는 것이 고금동서의 병학전문가들의 통상적인 전법이다. 그러므로 육군이나 해군은 임무상이거나 전술상이거나 서로 똑같이 육상 또는 해상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고 운용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군비를 기준으로 보면 바다가 없고 육지만으로 이루어진 나라이에서는 필요 없을 것이지만 해외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면 해군을 무시할 수 없다. 또 실용상 그 효력은 적다하더라도 정치적 이유에서 해군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이태리가 삼국동맹을 맺은 후 크리스티아누오스 1세를 해군대신으로 삼아 해군을 크게 확장한 것은 실용상이라기보다는 영국, 불란서를 능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유에서였다. 이와 같이 실지든지 정략상이든지 관계없이 해군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잘 알려진 일이다. 따라서 조선과 같이 삼면이 바다에 면하여 있고 해적의 침입이 끊이지 않는 나라인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까닭에 조선해군의 군비는 단군시대로부터 크게 주요시되어 왔으며 한강 하구 강화에 해안요새를 설치하고 배천생을 남해상장(해군대장)으로 하여 해상방위에 힘썼다. 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해군학교 조선소를 두어 더욱 발달하였다. 이제 해군의 역사를 되새겨 보기로 하고 신라 지증왕(智證王) 때로부터 살펴보자. 당시 해마다 왜구가 침범하는 까닭에 해군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어 해군제도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배와 노의 활용을 연구하였다. 그 후 진평왕 5년에는 병부(兵部) 내에 선부(船府)를 설치하고 항해술을 가르치니 해군학교가 시작된 것은 이때로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때 군제가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니 여기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왕조시대에는 군함이 1,000척에 이르렀고 수군이 3만에 달하였는데 수군 징집은 처음에는 노예와 일반주민으로 충당하였으며 공민왕 시대에 이르러 이색(李穡)의 진언을 받아들여 해변의 주민 중에서 많이 징모하였다. 당시의 수군은 순전한 민병이 아니었고 반용병이었으므로 바닷가의 전답을 조세 없이 경작케 하여 수군 가족의 생계를 돋도록 하였다.

이조(李朝) 초기에는 수군으로 인한 폐단이 많이 발생하여 그 수의 10분의 2를 줄이었고, 북방의 동쪽국경을 지키는 수군도 함께 없애니 해군의 세가

왕조 때에 꺼기였다. 임진전쟁 이후로는 크게 확장되고 대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쟁이 지나간 바로 뒤에는 이항복(李恒福), 유성룡(柳成龍), 윤근수(尹根壽), 장유(張維) 등의 제의가 많았으나, 전후 경제의 어려움이 많았음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숙종 시대에 이르러 비변국(備邊局)의 건의와 민유중(閔維重), 박세채(朴世采), 윤덕준(尹德駿) 등 여러 신하의 상소가 있어서 해상방어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박세채의 상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나라의 지세가 반도를 이루고 있으므로 바다의 방비는 없앨 수 없으며 또 임진년에 육군은 모두 패했으나 해군은 승리하였으니 이를 보더라도 부득불 해군을 확장하여야 한다. 등등...”

『立國之勢爲半島不可無海防又壬丁之年陸軍皆敗海軍勝利以此見之不得不擴張海軍 云云』

이와 같으니 당시 수군의 유리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였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한 고로 왕이 받아들여 각도의 순무사(巡撫使)를 불러들여 어전회의를 열고 아주 새로운 개혁을 내디디었다. (1) 전함을 개조하고 그 수를 늘리고 수선시기를 정하였는데 3년에 한차례 대 수리하고 5년에 한차례 개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해군은 해변주민으로만 모집하고 산골출신 수부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3) 요새가 될 곳에 항구를 파서 배를 두는 곳 즉 해안요새를 설치하고 1년에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대연습을 행하도록 하였다. (4) 전에는 수군은 갑옷을 입도록 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경비를 절약하고 운신을 편리하게 하며 배의 중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모두 폐지하였다. 또 수군도 육상 조련을 함께 익히도록 함으로서 변란이 발생하였을 때 수전이 없을 때에는 육전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윤덕준(尹德駿)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변경으로 군제를 새롭게 개혁하여 크

게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니 조선조 숙종(肅宗) 시대는 사실상 해군사의 한 계단을 장식한 때였다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군함은 800척이요 수군은 112,400명에 이르는 대군이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은 동양에서 제일 앞서 있었으며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다. 영국은 초기에 우리 조선과 마찬가지로 해변의 주민으로 해군을 징병하였으나 배안에서 규율이 제대로 잡히지 아니하여 육군을 배에 두어 규율을 잡고 감시토록 하였는데 이에 비하면 조선해군의 발달은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4. 군함의 연혁(軍艦의 沿革)

움직이지 아니하고 방어하는 것은 포대라 한다면 이동하며 방어하는 것은 군함이다. 그러므로 군함의 설비는 전쟁이 시작될 때 함께 필요하게 된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유리왕(儒理王) 6년 왜병은 배를 잘 부리고 병기도 잘 다루는 병사라는 말을 들었고(聞倭兵至理舟楫繕甲兵), 신라 자비왕(慈悲王) 10년에는 전함을 수리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며, 또 지증왕(智證王) 6년에는 처음으로 관리에 배를 지어 운영하라는 명(始命有司制舟楫之利)한 일이 있었다. 상고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으나 신라시대부터는 배를 짓는 설비가 크게 갖추어졌다. 그러므로 남동양쪽 바다를 떠를 이루며 배들이 숲을 이루듯 떠있어서 적을 방어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군함이라 함은 전국 강에서 쓰이는 큰 배(江舡)의 거의 모두가 군용품으로 속하여 있었다.

그 제작은 작은 강에서 조운에 사용하는 거룻배와 같이하였다. 이를 처음으로 바꾸어 준 것은 천수대왕(天授大王) 즉 왕건(王建)이 궁예(弓裔) 밑에 있으며 백선대장(百船大將)이 되었을 때이다. 이때 전함 백여 척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중 큰 것이 십여 척이었다. 이는 각방향이 16보(步 : 1보는 6척)로서 선내에서는 말을 달릴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배마다 수병 30인을 태운다고 하였다. 현종(顯宗 : 고려 8대왕, 991~1031, 재위기간 1009~1031) 원년에는 과선(戈船 : 배 밑에 창을 단 배) 75척을 제작

표 1

구 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황해	함경	평안	합계
대맹선(大猛船)	16	11	20	22		7		4	80
중맹선(中猛船)	20	34	66	43		12	2	15	192
소맹선(小猛船)	14	24	105	33	14	10	12	4	216
무군맹선(無軍猛船)	7	40	75	86	2	10	9	20	249
합 계	57	109	266	184	16	39	23	43	737

표 2

구 분	북통어영 (北統禦營)	남통어영 (南統禦營)	경 상	충 청	전 라	황 해	평 안	계
전선	2	26	12	5	34	2		81
거북선	1	14	2	5	17			39
방선	11	21			31	27	5	98
병선	9	43	16	21	48	9	4	130
척후선	17	93	33	34	105	1	12	295
잡종선	17	4	1	8	1	77	15	123
합계	57	183	64	94	236	106	36	776

주: 잡종선에는 탐선(探船), 복물선(卜物船), 거룻배(??船), 보경선(報警船), 급수선(汲水船), 요망선(瞭望船), 협선(挾船), 추포선(追捕船), 별선(別船) 등이 있다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구축선(驅逐船)에 비교될 수 있는 선박이다. 원종(元宗 : 고려 1219~1274, 15년 재위, 재위기간 1259~1274) 12년에는 전함도감(戰艦都監)을 설치하여 조선은 나날이 확장하니 당시 중국의 전함은 전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간 것이었다. 이때 조선기술자는 승려가 많았는데 이는 조선기술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제2차의 개혁은 이씨조선세종 때에 전함사(戰艦司)의 제조(提調)였던 신숙주(申叔舟)가 당(唐), 왜(倭) 유구(琉球) 등의 다른 나라 선체를 참조하고 절충하여 새로운 선형을 제조함으로 이루어 졌다. 크기는 대·중·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대선은 해군 81인을, 중선은 60인 그리고 소선은 30인을 태울 수 있었다. 선형은 갑판구조물(上粧)을 달고 전시에 사용하다가 이를 떼어내고 조운에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명칭을 평상시에는 운조선(運漕船)이라 하였으며 전시에는 맹선(猛船)이라 하

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도의 군함을 동일하게 개조한 것을 보고한 후 양화나루(楊花渡)에서 진수식을 겸하여 열함식(閱艦式)을 행하였고 이에는 왕이 직접 참석하였다. 이때 선박의 수효를 경국대전에서 조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제3차 개혁은 임진전쟁이후에 이루어졌다. 그 기원은 수군대장 이순신(李舜臣)이 거북선 13척을 창조하여 적함 600여척을 대파한 공적을 본받아 일반 선형을 모두 거북선 형식으로 신조하였다. 이때는 숙종 36년으로서 신조한 수와 명칭은 앞의 표에 보인바와 같다.

거북선은 잠수정이라 하였는데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의 위를 큰 판으로 덮고 그 판위에는 십자로 좁은 통로를 두어 통행이 자유롭게 하였으며 그이외의 곳에는 송곳을 박아 발불일 곳이 없도록 하였으며 앞은 용머리 뒤는 거북꼬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선체 전체를 철갑을 씌웠으며

총구멍을 전후좌우 8개를 두어서 대포를 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적을 만나면 위에 명석(編茅)으로 덮어 송곳을 가림으로 선봉으로 배에 오르는 자가 걸려들게 하였다.

거북선이 나온 뒤로 조선술이 한층 더 발전하여 여러 가지 발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영종 16년에 전라수사 전운상(田雲祥)이 해골선(海鵠船)을 만들었다. 이배는 머리가 낮고 꼬리가 높으며 앞은 크고 뒤는 작아서 바다 매(海鵠)와 형상이 비슷하며 마치 물고기 형상의 잠항정이었다. 뱃전위로 좌우 양쪽에 부판(浮板)을 달아 두 날개 모양(Trimaran과 비슷한 형상?)을 이루었다. 이배는 거친 바다에서도 격정할 것이 없었으며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었다. 배안에서는 밖을 살필 수 있었으나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었으니 노군(櫓軍)과 사수(射手)가 모두 몸을 숨기고 사격할 수 있었다. 또 그 후 해서(海西) 사람 유집일(兪集一)이 윤선(輪船)을 만들었다. 윤선은 전후에 바퀴(輪)가 있고 선수와 선미에 타를 달아 전후진이 쉽도록 하였으며 그 속력이 나는 새와 같았으니 오늘날의 증기윤선(蒸氣輪船)과 다를 것이 없었다 하겠다.

이상에서 거북선, 해골선, 윤선 등을 발명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상 조선술과 해군의 발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해지는 배를 짓는 기본정신은 아름다운 형식에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전술상이용만을 생각하였으므로 공격에 긴요한 점만을 생각하였을 뿐이었다.

예컨대 Turkey의 군함과 같이 천하에 장관을 드러냈으나 국왕의 눈을 즐겁게 하는 노리개에 불과하고 실용상 효력이 없다면 무엇에 쓸 것인가? 대체로 조선의 군함사를 살펴보면 그 창조 발명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었으니 철갑선을 만든 것이 서양보다도 59년이 앞서 있었다. 그러나 신구가 바뀌는 때에 새로운 형식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하여 광무 년에 일반 군함을 신조하기로 하고 우선 한척을 일본에서 사들이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양무호(揚無號)라 하였다.

5. 병기(兵器)

군대의 편제는 병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하 여야하며 전쟁의 승리는 주로 전략과 전술에 따르게 되지만 병기가 불리하면 승리를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병기의 역사는 군사상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역사의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그 종류와 형상이 어떠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필자가 조사한 것은 큰 줄거리에 두고 있어서 알고 있는 것일 지라도 자세히 설명하기에 부족하여 여기에서는 골자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1) 돌 제품(石品): 석전은 조선 사람들의 특기로서 지리상으로 석물이 많은 것을 응용하게 된 것이고 또 상고의 석기시대에 일용품으로 석물을 이용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상고시대에 병기로 이용한 것은 돌도끼(石斧), 돌칼(石刀), 팔매 돌(石彈) 등이 있으며 크기와 형상은 분명하지 않으나 지난해에 어떤 사람이 성진강(城津江), 강화(江華) 등지에서 발굴한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성진(城津)에서 출토된 것

- 큰 돌칼(大石刀) 1개 좌우 양날, 폭 6 cm 두께 1.8 cm
- 작은 돌칼(小石刀) 1개 엄지손가락이 닿는 곳이 오목하다.

강화에서 출토된 것

- 돌 도끼(石斧) 1개 길이 9.6cm, 날의 길이 3 cm, 두께 3cm, 등근 모양의 날

(2) 나무제품으로는 활(弓), 화살(矢), 모(矛), 창(槍) 등인데 이는 석기시대로부터 함께 쓰여 왔다.

- 큰활(大弓) 형상이 동양에서 가장 큰 것
- 화살(楛矢) 싸리나무 대에 가시나무(楷)로 촉을 만들어단 것으로 이것 또한 조선의 특산품이다.
- 긴창(矛) 길이가 3장(약 5.4 m)이었으므로 더러는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야했고 철 또는 돌을

달았다.

「如鍛而三廉 兵器長柄頭刃」

- 창(槍) 대나무로 끝을 비스듬히 잘라 만든 찌
르는 용구

「削竹木之端 刺物用具」

그중 궁술은 크게 발달하여 용품 또한 잘 만들어 사용하였다. 중기 고대에는 수질노(繡質弩), 팔우노(八牛弩), 구궁노(九弓弩), 철궁(鐵弓), 포노(砲弩) 등이 있었으며 화살에는 대우전(大羽箭),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노수전(弩手箭), 차노전(車弩箭)의 5 가지를 사용되었다.

(3) 철제품은 상기 고대 중엽으로부터 지금까지 사용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철추, 모, 창, 검, 도끼 등이 쓰여 왔다. 그중에 철퇴로서 유명한 것은 전래되어 오는 물건 중에 박랑추(博浪椎)가 박물관에 있는데 이는 여도령(黎道令)이 진시황(秦始皇)을 공격할 때 사용하든 것으로 나라의 사신(國使)이 요양(遼陽)부근에서 습득한 것으로 길이가 6자 정도이고 무게는 120근인데 몸통에는 52글자가 전자(篆字)로 새겨져 있다. 중기 고대에는 철제의 사용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당시 사용하던 병기를 역사기록에서 찾아보면 다음의 것들이 있다.

궁전(弓箭), 역검(力劍), 모(鉤), 삭(槊), 창(槍), 극(戟), 월(鉞), 포노(砲弩), 고시(棓矢), 포차(砲車), 포석(拋石), 금갑(金甲), 조부(彫斧), 철순(鐵盾), 명광개(明光鎧), 금휴개(金鬚鎧), 철적(鐵的), 고취(鼓吹), 철질려(鐵蒺藜) 등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24반의 무기가 있었다.

(4) 기관화약(機關火藥)

불을 다루는 기구는 신라시대로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방화대(放火隊)라는 편제가 있었다. 고려 때부터는 화약의 힘을 빌려 들을 던지는 기구를 발명하였는데 그 기원은 덕종(德宗, 1016~1034, 재위기간 1031~1034) 때에 시작되었다.

박원작(朴元綽)은 놀등석포(雷騰石砲)를 만들었으

며 조언(趙彦)은 석포(石砲)를 그리고 최무선(崔茂宣)은 화포를 제작하였다. 그 뒤 임진왜란이 지난 후에는 총과 대포가 쏙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때 박진(朴晉)이 발명한 진천뢰(震天雷)가 있었다. 진천뢰는 폭발탄인데 이는 동양이 원조이며 대포는 우리나라의 발명은 아니나 제작기술은 발달하였는데 영국의 원수 키쓰지나 가 조선의 옛날 대포를 보고 경탄하여 동양의 선진이라고 한바있다.

6. 교통술(交通術)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였는데 적을 알아내는 데는 민첩한 교통수단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군사상 교통의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으나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고 상인으로 가장하던가, 시찰관 등을 외국에 파견함으로서 외국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계책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한 결과 기계를 왕성하게 활용하여 교통이 편리하게 되었으나 전에는 그렇지 못하여 느리고 둔하기 이를 데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에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한 가급적 승리를 얻도록 지식을 사용하였을 것임으로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고대의 교통방법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봉화이고 다른 하나는 우체방식이다. 봉화는 불빛이 보일만한 높은 산에 횃불을 올려서 비상을 알리는 것으로 전국에 봉화대가 500여개가 있었으며 봉화를 올리는 방법은 평상시에는 하나의 횃불을 올리고 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두개의 횃불, 적이 국경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세 개의 횃불, 적이 국경을 침범하였을 때에는 4개의 횃불, 적과 접전이 일어났을 때에는 5개의 횃불을 올렸다. 그리고 연일 접전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셋을 쌓고 짐승의 분변을 함께 사용토록 하였는데 밤에는 불빛이 보이도록하고 낮에는 연기를 일으키도록 하여 연기와 불빛을 함께 사용하여 통신하였다. 한곳에서 횃불을 들면 각처의 봉수대에서 차례로 봉화를 올리게 함

표 3

구 분	경 기	총 청	전 라	경 상	강 원	황 해	평 안	함 경	합 계
역줄	359	2480	2446	30276	9034	5316	4351	32391	86,653
역마	352	752	546	1687	503	221	301	925	5,287

으로서 짧은 시간에 전국에 알려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우체방식을 살펴보면 가까운 거리에 역참(驛站)을 설치하고 서신을 번갈아 보내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말을 타고 급한 공문을 보내는 기발(騎撥 : 서울과 의주사이에 주로 활용)제도와 도보로 급한 공문을 전하는 보발(步撥 ; 서울과 동래, 서울과 경성사이에 주로 활용)제도를 두었다. 기발은 25리마다 1참을 두고 장 1명 졸 5명 밀 5필을 비치하였으며 보발은 30리마다 1참을 두고 장 1명과 졸 2명을 두었다. 말을 달릴 때나 보행을 함에 있어서 모두 출발할 때 지켜야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급한 것은 방울 한 개를 달고 좀더 급한 것은 방울두개 그리고 아주 급한 것은 방울 세 개를 달는 등으로 급한 정도에 따라서 방울을 다르게 달도록 하였다. 전국의 역마와 역줄의 수효를 조사하면 표 3과 같다.

이외에 전쟁지역에서의 수색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깃발신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병이 주로 담당하였다. 이때는 색깔이 있는 깃발을 사용하였는데 숲이 깊어지는 곳('深林草木')을 만났을 때에는 청색깃발을 들고 혐한 구릉지역('丘陵險阻')을 만났으면 적색깃발을, 시골 마을('上村邑里')일 때는 황색깃발, 적의 소리가 들릴 때('寇賊音色')는 백색깃발 그리고 강과 바닷가일 때('水洋江河')는 흑색깃발 등으로 신호를 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병부(兵符)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군주가 전지를 향하여 긴급한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이 확실한 것임을 군신간에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호패(虎牌)라 하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철패(鐵牌)에 호랑이 모양을 새겨 넣고 두 부분으로 나누고 좌측부분은 궁에서 보관하고 우측부분은 각 장수들에게 나누어 보관케 한 것이다. 왕명을 전달할 때에는 명을 전달하는 사람은 이를 가지고가 믿을 수 있음을 보이도록

하였다. 대체로 이 제도는 아주 오래전인 신라시대로부터 있어 왔으나 이조에 들어서 완비되었다.

7. 요새(要塞)

예전부터 방어기구를 설치함에 큰 힘을 기울여 왔다. 성을 쌓고 방책(防柵)을 세우며 방어용 보루를 필요위치에 빼짐없이 배치하는 등 그 공사는 연중 이어지는 큰 공사인 경우가 허다하였다. 단군시대에 축성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강화도 전등 산성(傳燈山城)이 있다. 이 성은 단군이 아들을 보내어 성을 쌓도록 한 것인데 요즈음의 축성기준에 따라서 본다면 해안요새에 해당하는 성이다. 중기고대로부터 전투가 더욱 잦아짐에 따라서 요새를 빼앗으려는 힘이 커지게 되었다. 고구려 동천왕(東川王) 시절에 축조한 평양성을 보면 둘레가 24,549척이고 높이가 13척이었고 외성은 돌로 쌓은 부분의 둘레가 8,200척이고 흙으로 쌓은 부분의 둘레가 20,200척이었는데 높이가 매우 높아서 32척에 달하였다. 또 고구려 영류왕(榮留王) 때에 축조한 장성은 역사상 가장 장대한 성으로서 동남의 부여 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남의 바다에 이르기 까지 거의 1000여리에 달하였는데 이를 축조하는 일은 거의 16년간에 걸쳐서 이루어 졌다.

신라통일 이후에는 외국과의 전란이 심하지 아니하여 큰 공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만 현덕왕(憲德王; 신라 41대왕 ~826) 때에 축조한 바 있는 패강장성(湊江長城)이 있을 뿐이다. 그 뒤 고려 현종(顯宗) 때에 축조한 외성은 미증유의 대공사로서 21년간에 걸쳐서 축조된 것이다. 성은 둘레가 29,700보(步) 이었으며 둘레에 전각이 13,000칸(間)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때 함께 이루어진 것은 본영성(本營城)으로 쓰일 수 있는 12곳과 진영성(鎮

표 4

구 분	함 경	평 안	황 해	경 기	총 청	강 원	경 상	전 라	합 계
영구성	4	12	2	5	7	4	6	6	46
반영구성	14	18	4	1	16	6	23	20	102
진	12	4	2				5	3	26
보	46	31	1		3		20	13	114
행성	5	5							10
장성	3	1							4
책	2	8	2						12
해안요새	4	3	7	6	6	3	7	5	41
고성	15	50	18	38	67	39	51	45	323
고진	53	29	5		3	5	20	19	134
합계	158	161	41	50	102	57	132	111	812

營城)으로 쓰일 수 있는 29개소가 있었는데 이들 41개소 모두가 대 요새였다. 그 외에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성은 일일이 꼽을 수 없으나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살펴보면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성채를 꼽아보면 표 4와 같다.

위의 표에 나타난 성의 종류를 축성학 상으로 논하려면 특별한 차이를 두기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영구축성은 성내부에 군비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고 마실 물이 될만한 우물이 있어서 방어와 전투에서 중요한 진지가 되는 곳이다. 반영구성은 임시요새지로서 군사가 주둔하여 전쟁을 하던 곳이고 진(鎮)은 군영이 있던 곳이니 사령관 또는 군 지휘관 및 군대가 있으며 일반 군사업무를 처리하던 곳으로서 영구성이나 반영구성을 방비하였다. 보(堡)는 병을 과견하여 지키도록 하였으니 이는 소부대가 지키는 방어성으로서 국경수비를 하였다. 행성(行城), 장성(長城), 책(柵)등은 외방방어의 가장 끝이 되는 곳이었다. 해안의 요새는 특히 해변을 방위하는데 있었으나 해군의 군영도 있었으며 해군이 지키는 보와 군항이 있었다. 황해도의 대진관(大津關), 금슬곶(琴瑟串) 등은 선박의 출입을 엄히 금하고 통상을 하지 않으며 수비만을 행하던 대규모의 곳이었다.

일반성을 감독함에 있어서는 수첩군관(守牒軍官)과 성직이 군졸을 특별히 두어 보수업무를 맡기였다. 성의 설비는 비밀에 속하는 것이어서 알기 어려우나 포대와 군기를 갖추는데 힘썼으며 방어방침을 이해하는데 힘썼으나 오늘의 새로운 성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

8. 전법(戰法)

전술의 역사는 수없이 많아서 두세 페이지의 짧은 글로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육해군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일부로서 대체를 살펴보는 것임으로 전법의 대강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장 오래된 대형은 길이로 길게 늘어선 집단으로 종대(縱隊)라 부른다. 이 대형은 국민과 연합하여 전투를 시행하는 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용기 있는 자를 앞세워 싸우게 하고 겁이 있는 자는 뒤에서 소리를 지르게 하여 한편으로는 적을 압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군을 고무시킴으로서 위험을 당하지 아니하며 전투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국민 중에서도 가장 상급자는 갑옷을 입었으며 하급자는 가벼운 무장을 하였는데 대체로 오래전부터 작전은 지식과 학문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관계

로 극히 단순하였다. 그 후 병기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부대를 나누게 되었는데 활 부대(弓隊), 투석부대(投石隊), 창 부대(槍隊) 등으로 횡대를 이루었는데 투석부대는 대형의 좌우 단에 배치하고 창 부대를 전방에 활 부대를 후방에 배치하고 전투를 행하였는데 이때까지 전투는 순전히 정면공격법이 통례이었다. 중기고대시대로부터는 기병을 편제에 두게 되었는데 기병은 부대의 눈과 귀가되어 수색과 경계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대무신왕(大武神王)이 한나라를 정벌하고 아홉 성을 얻은 이후로 수미 상응과 좌우협공 즉 측면 공격이 시작되었으니 이후로는 전술과 전략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병기도 용도에 따라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근고(近古)시대에 이르러 거란(契丹)전과 여진 전 때로부터 전군을 각도로 나누어 적의 여러 진지를 빼앗은 후 총 공격을 행하는 방법 즉 분진합격법(分進合擊法)이 행하여 졌는데 이는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전략과도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고조선의 전법이 얼마나 잘 발달 되어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학술상으로 전법을 논하자면 공격전과 방어전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전자는 적국에 쳐들어가서 싸움을 하는 것으로서 신속히 승리를 함으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면하게 하고 사기를 높이며 적의 자원을 얻게 되는 등의 이익이 있다. 후자는 요새와 지형을 이용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이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군이 쳐들어 올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서양의 학자들이 동양의 병법은 모두가 방어전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조선도 전쟁 역사를 읽어보면 전쟁의 정신과 목적을 방어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들 전쟁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술이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고 어리석게 지키려고만 한 것은 아니었다. 고구려 대무신왕(大武神王)의 한나라 정벌, 고구려 태조왕의 한나라 정벌,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대전, 고려의 여진토벌, 최형(崔瑩)의 원나라 공격, 남이(南怡)의 북만(北蠻)

정벌, 세종의 대마도 토벌, 효종의 러시아 정벌 등 역사에 기록된 대전은 실로 혁혁한 공격전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동양에서 공격전의 이점을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고조선 한나라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세세히 분석하고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고대로부터 전래되는 군사학술을 논하는 서적을 읽어 보면 그 이면이 어떠하였는지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참고문건을 아래에 소개함으로서 후인의 연구를 돋고자 한다.

아 래

무오병법(武烏兵法)	화령도(花鈴圖)
김해병법(金海兵法)	오위진법(五緯陣法)
병장설(兵將說)	병법대지(兵法大旨)
논장편(論將篇)	위장필람(爲將必覽)
훈영차록(訓營箚錄)	역대병요(歷代兵要)
진설(陳說)	동국병감(東國兵鑑)
병설(兵說)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제승방략(制勝方略)	병학지남(兵學指南)
마경언해(馬經諺解)	행군수지(行軍須知)
연병규식(練兵規式)	연기신편(演機新篇)
병학통(兵學通)	진법구편(陣法九篇)
예진총방(隸陳總方)	화포식(火砲式)
자초방(煮硝方)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9.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안화은 마지막으로 네 줄의 “0”자 행렬을 배열

특별기고

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이는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였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시대적 배경과 안학의 당시 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독

자들에게 자신의 항일 의지를 함축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역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

황종호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



· 현 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
· 연락처: 02-880-7049

김효철 |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1940년 11월 29일생
· 1976년 서울대 박사
· 현 재: 서울대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 연락처: 02-880-7323
· E-mail: hkim@gong.snu.ac.kr